

치 사

번뇌의 불꽃이 모두 소멸하고 일체의 고통이 사라지는 경지에 달하는 것은 비단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서원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너무도 다양한 사유들로 고통을 겪는 현대인들은 부처님의 말씀이야말로 따뜻한 치유의 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 연소하여 또 다른 시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미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열반은 단순히 이 생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으로 이끄는 영원한 안식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행복, 열반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 인류의 스승은 약 2600여 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생로병사가 주는 고통의 해답을 찾기 위해 오랜 고행 끝에 육체와 정신의 일체를 통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인류의 스승 붓다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그 후 진리의 가르침을 펼친 부처님은 쿠시나가르의 사라 쌍수나무 사이에서 영원한 평안에 드시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반드시 어떤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 탄생하며 이러한 존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무상^{無常}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도 진신사리와 부처님의 말씀인 법사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도 인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보급과 더불어 조탑공덕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후 고려, 조선시대에도 진신사리를 비롯하여 『보협인다라니경』 등의 법신사리를 탑 내에 봉안하는 법사리 신앙이 꾸준히 성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 아니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세계를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추어,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전달하며 소중한 정보문화재로 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어느 때보다도 잘 담고 있는 이번 특별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소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중한 정보를 맡겨주신 기관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전 기간동안 참배하신 모든 분들이 궁극의 행복을 저마다의 마음에 깊이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기2558년(2014) 7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